

한국 공공도서관장의 사회적 배경 및 사회화과정의 고찰

A Study on the Social Background and Status Attainment Process and a Life-Style of the Public Library Directors in Korea

김 포 옥(Po-Ok Kim)*

목 차

- | | |
|---------------------------|-----------------------------|
| 1. 서론 | 3.3 도서관장의 직업경력 |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4. 도서관장의 성장지와 희망직종별 분석 |
| 1.2 선행연구 | 4.1 청소년시기 성장 거주지와 희망 직종별 비교 |
| 1.3 연구방법 | 4.2 대졸시기의 성장 거주지와 희망 직종별 비교 |
| 2. 공공도서관장의 사회적 배경의 요인 | 5. 도서관장 이후 생활의식의 변화 |
| 2.1 세대별 분포 | 5.1 도서관장의 탐구생활 방법 |
| 2.2 청소년기의 성장 거주지 | 5.2 도서관장의 여가생활 방법 |
| 2.3 청소년기의 가정 분위기 | 5.3 현직 도서관장으로서의 외부활동 상황 |
| 3. 도서관장의 사회화 과정에 관한 요인 분석 | 5.4 도서관장의 효율적 개발활동 분석 |
| 3.1 도서관장의 학력 및 전공 이수 | 6. 결론 및 제언 |
| 3.2 성장과정에 따른 희망직업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공공도서관장들의 사회적 배경과 관장직을 달성하기까지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조사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88명의 공공도서관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중요사항을 정리하면 도서관장들의 성장거주지는 도시보다는 지방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장들의 전직 경력으로는 사서직종 보다는 교원직이나 행정직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직무 수행을 위한 탐구적 생활자세나 의식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활동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위한 외부 활동의 자세도 극히 부족하다. 미래 도서관장들의 의식은 어느 시기나 어느 지역에서던 질적 봉사를 높이고자 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 공공도서관계에서 전문적 성향의 도서관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미래 후학들에게 새로운 의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장, Social perception, Professional perception, Socialization proces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some attributes of intrinsic and social background and status attainment process and a life-style of public library directors in KOREA. The data obtained from 188 respondents in 1999 were used for analysis. Some of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① The majority of the directors has a career as a teacher or local public administrators rather than a librarian. ② The birth places of the directors a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and those who were born in rural area account for about of all respondents. In rural area, it might be difficult for them to access information on newly developing profession like librarianship. ③ Although the educational level of directors themselves is higher than general public. ④ Library schools which give students high grade knowledge and training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e not so many, and hence directors are primarily local public administrators rather than qualified librarians. ⑤ Many directors did not aspire to become librarians, rather they got the post after they had been working as a teachers or lawyer, local public administrators. ⑥ If the library services of better quality are provided all over the country, urban or rural, and library schools in higher education are developed and have much more satisfactory substance, and abler library directors. And then we can expect that the qualified librarians's director system in public libraries will become an accomplished fact.

* 전북대학교 인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2001년 6월 20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출생하면서 거주지나 성별 및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영향이나 사회계층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직업적 성취를 실현시키고자 도모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 공공 도서관장들이 사회적 성장 과정상에서 받은 영향요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실체를 찾아보기 위해 사회적 배경에 따른 여러 데이터를 조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도서관장직이란 도서관 운영 조직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이며, 운영 책임의 최고 위치인 동시에, 더욱이 그들의 의식은 그 나라 도서관 운영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직업적 역할의 수행은 지금까지의 생활과정상에서 얻게 되는 개인의 다양한 만남의 기회와 그가 이루어 놓은 선택의 범위 속에서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다양한 변화요소로서 결정지을 수 있다고, 일본의 사회학자인 渡邊秀樹씨는 설명하고 있다.¹⁾

그리고 그 다양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① 그가 태어나 성장한 지역과 시기 ② 가족의 분위기와 경제적 요인 ③ 학력관계 ④ 관장직 이전의 경험 또는 직업경력 등의 요소를 중요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서관계에서 특히 공공도서관장들이 직업적 지위를 성취함에 미치게 되는 성장 과정상의 이상 변수적 제 요인들을 조사 분석해 보며,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여러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로 인한 한국의 도서관장들의 본질적 속성의 특성을 고찰해 보며, 조사 결과에서 얻은 내용은 미래 한국의 공공도서관장들이 사회적 배경에 따라 대처하는 직업적 의식과 역할의 변화를 제시해 주는 연구자료로 삼고자 함에 있다.

1.2 선행연구

1.2.1 국내연구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의 관장에 대한 논의는 1975년 장일세씨가 처음 관장의 전문성을 지적하였다. 그에 말에 의하면, 195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정규도서관학과가 설치된 이후 현재 18년이 지났건만, 공공도서관의 관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과장으로 중견 도서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현실을 토로하면서, 도서관인의 전문성을 확립하여야 함을 역설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²⁾

또한 1985년 김세익씨는 한국 도서관장의 유형을 전문직 도서관장, 행정직 관장, 명예직관장, 한직관장 등의 4가지로 구분하여, 도서관장의 임용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현재 전문직의 관장은 적고, 오히려 행정적 관료 출신의 관장과, 정년 후보자들의 일시적 징검다리식 직위로서의 한직 도서관장들이 대다수를

1) 박문상, 1991.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 확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p.81.

2) 장일세, "공공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 분석", 남산도서관보 1975, 4-5, pp.53-63.

이루고 있음에, 한국 공공도서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장들의 임무와 책임에서 전문직 관장의 임용의 시급성과 그들의 근무조건 개선, 관장의 인격적 예우 및 연수의 기회, 조직의 합리화, 도서관장의 봉사에 대한 확대방안, 예산의 확보, 현대 도서관 행정의 의미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³⁾

이외에 국내에서 한국 공공도서관장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의식조사 및 그들의 사회적 배경 또는 도서관장들의 생활태도에 관련된 연구 논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1.2.2 국외연구

외국자료 중에서도 대학도서관장들의 역할 변화에 관한 논문만 나타날 뿐, 공공도서관장들의 직위나 역할 및 그들의 사회적 배경등에 관한 자료는 최근 10여년 동안 찾아 보기 어렵다.

다만, 미국의 코테즈(Cortez, Edwin-Michael)가 1980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미국 전체의 중규모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도서관장의 경영적 논리가 중간관리자들의 직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실험한 바 있다. 저자는 일반적 경영이론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중간관리자들의 업무수행과 그들의 직업만족도와의 상관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었다. 조사 결과 그들의 관계는 유의한 차가 성립되었다고는 하나, 저자는 앞으로 도서관 직원들

의 실무내용을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면밀히 조사해야 함으로,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⁴⁾

이와같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공도서관장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된 자료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인은 국내 공공도서관장들의 의식과 역할 변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국내 학술지에 이미 출고한 “한국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직 의식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⁵⁾와 “한국 공공도서관장의 사회의식 및 생활, 봉사에 관한 연구”⁶⁾에 이어 그 후속 내용으로서, 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1.3 연구방법

조사 대상은 전국 공공도서관장 3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회송을 받은 응답자 188명을 유효표로 삼았다. 설문지와 함께 명확치 못한 응답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화 또는 팩스,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장들의 사회화 조사과정에서는 직업적 위치와 업무달성에 관계되는 요소들로서 ㉠ 청소년 시기의 거주지 ㉡ 가정 분위기 ㉢ 전공 이수 ㉣ 청소년 시기 및 대졸 당시의 희망 직업 ㉤ 도서관장이 되기까지의 직업 경력등의 5가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련된 통계적 분석과 그 조사 결과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3) 김세익, “도서관장의 책임과 역할”, 도서관보 1985. v.40 no.3 pp.5-11

4) Cortez, Edwin-Michael, “The Effects of library directors' theory of management upon middle management behavior in medium-size public librari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80. DAI, v.41, no.4, p.1

5) 도서관 논집, 제 28집,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1998. 9. pp.1-38

6) 한국비블리아, 제11권 제1호, 한국비블리아학회, 2000. 6. pp.93-110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인 도서관장 전체에 대해서 위에서 제시한 여러 요인별 또는 요인과 요인간의 클로스분석을 수행하고, 아울러 응답자들의 직업적 경력을 아래와 같이 6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그 통계적 유의성의 결과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도서관장들의 직업적 경력의 영역을 구분하여 설명하면 ① 최초로 행정직을 거쳐 관장이 된 그룹 ② 교원직을 거쳐 관장이 된 그룹 ③ 변호사나 금융계, 또는 언론계나 사서직과 같은 전문직을 거쳐 관장이 된 그룹 ④ 기술직을 거쳐 관장이 된 그룹 ⑤ 군인, 경찰직을 거쳐 관장이 된 그룹 ⑥ 사업 및 기타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상호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 공공도서관장의 사회적 배경 요인

2.1 세대별 분석

2.1.1 연령별 분포

응답자인 공공도서관장들의 연령은 1999년 12월을 조사기준으로, 현재 27세에서 63세에 미치고 평균 연령은 49세로 나타난다. 여기서

도서관 관장들의 생년별 분포를 5세대위로 나누어 본 내용은 <표 1>과 같다.

공공도서관장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55세 이상의 관장이 52명으로 3할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9세 미만의 연령이 39명(20.7%)으로 나타난다. 제3위로서는 40대 초반의 관장은 38명(20.2%)으로 분포되어 있다. 반면 가장 낮은 비율로서는 45세이상 50세 미만의 관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면에서, 한국의 현직 공공도서관장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연령으로서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1.2 세대 표현의 비교

“귀하의 세대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를 하나씩만 골라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한 자유 응답식의 집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회적 배경에 따른 세대 표현의 12개 용어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용어의 순위로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도서관장들의 세대적 의식의 표현은 6.25세대와 4.19세대의 용어가 가장 높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통

<표 1> 공공도서관장의 연령별 분포

연령	인원수(명)	비율(%)
27세 ~ 39세	39	20.7
40세 ~ 44세	38	20.2
45세 ~ 49세	15	8.0
50세 ~ 54세	33	17.7
55세이상	52	27.7
무응답	11	5.9
계	188	100

〈표 2〉 세대표현의 비교

세대표현/구분	인원수(명)	비율(%)
6·25전쟁세대	45	23.9
4·19세대	42	22.3
70년대 고도성장세대	41	21.8
80년 사회혼란시대	31	16.5
90년 국제화 시대	12	6.4
컴맹시대	4	2.1
정보홍수시대	9	4.9
인터넷 정보시대	2	1.0
무응답	2	1.1
계	188	100

계적 수치상에서 50세 이상의 연령별 분포 비율과 관련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90년대를 표현함에 해당되는 세대의 용어는 〈국제화 시대〉 〈정보홍수시대〉 〈컴맹시대〉 〈인터넷 정보시대〉 등 4가지로서 응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컴맹시대〉나 〈인터넷 정보시대〉라고 지적인 관장의 수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도서관장들의 사회적 변화 의식과 전문적 대응자세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2.1.3 세대별 특성

“귀하께서 다른 세대와 차이가 있다면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2개씩 택하도록 하여 집계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이 나타나다.

〈표 3〉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 우선 한국의 공공도서관장들은 각 세대에 구별 없이 전체적인 면에서, 〈개인의 일보다는 공적 일을 중시한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제 1순위로서 가장 높으며, 제 2순위는 〈근면성〉, 제 3위는 〈인내

심〉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 1위에서 제 3위까지의 이러한 특성은 젊은 세대층보다는 오히려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개인생활중심〉에 대한 의식이나 〈능력위주〉 또는 〈민주성향〉과 같은 의식 등은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순위로서 분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오히려 39세 이전의 젊은 세대층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여 39세 이하 계층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식은 강하지만, 일면으로는 사회적인 공적 책임감보다는 개인생활을 보다 중시 여기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40세 이후부터는 〈개인생활중심〉에 대한 의식 순위가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사회적 안정 속에서 도서관장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면 40세 이후 도서관장들의 세대 표현의 의식중에서 〈능력위주〉에 대한 의식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난 현상속에서, 필자는 아직도 많은 도서관장

〈표 3〉 도서관장의 세대별 특성 비교

(단위: 명/%)

특성구분 \ 세대별구분	27~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세이상	합계(%)
1. 개인보다 공적일 중시	19(21.6)	18(20.5)	7(8.0)	18(20.5)	26(29.5)	88(100)
2. 근면성	12(17.9)	19(28.4)	6(9.0)	11(16.4)	18(28.4)	67(100)
3. 인내심	10(17.2)	12(20.7)	4(6.9)	14(24.2)	17(31.0)	58(100)
4. 정의감	8(15.0)	14(26.4)	6(11.3)	9(17.2)	16(30.1)	53(100)
5. 보수적	10(19.2)	10(19.2)	7(13.5)	8(15.4)	17(32.7)	52(100)
6. 장유유서	8(19.0)	8(19.0)	3(7.2)	11(26.2)	12(28.6)	42(100)
7. 가정중심주의	8(21.0)	6(15.8)	1(2.6)	6(15.8)	17(44.8)	38(100)
8. 신의감	8(25.8)	5(16.1)	2(6.5)	7(22.6)	9(29.0)	31(100)
9. 민주성향	5(16.7)	11(36.6)	2(6.7)	6(12.0)	6(20.0)	30(100)
10. 능력위주	10(40.0)	5(16.1)	2(8.0)	1(4.0+)	7(28.0)	25(100)
11. 개인생활중심	8(44.4)	2(11.1)	1(5.6)	3(16.7)	4(22.2)	18(100)

들의 의식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의감〉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50대 이전 세대보다는 55세 이상의 세대에서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민주적 성향〉보다는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 청소년기의 성장 거주지

도서관장이 되기까지 어렸을 때의 도시와 농촌 등 성장 거주지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서관장들의 청소년 시기의 거주지를 5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해 보았다. 거주지의 구분은 〈시골〉 〈시골과 가깝다〉 〈도시에서 가까운 도회지〉 〈도시〉 〈어느 쪽도 아니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표 4〉와 같이 현직 공공도서관장들의 청소년기의 성장거주지 영역은 〈도시〉나 〈도회지〉

사람보다는 〈시골〉 또는 〈시골에 가깝다〉 등의 지방출신들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시골〉 출신의 도서관장이 64명(34%)으로 가장 많고, 제 2순위는 〈도시〉 출신의 관장이 59명(31.4%)으로 나타나며, 제 3순위로는 〈시골에 가깝다〉라고 응답한 도서관장이 37명(19.4%)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2.3 청소년기의 가정 분위기

공공 도서관장들의 어린 시절의 가정 분위기를 알기 위해, 진로를 결정할 당시의 가정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나듯이, 가정 분위기의 척도 기준은 〈양친의 생각 방향〉 〈자식의 희망 중시〉 〈양친의 불간섭〉 등의 3그룹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표 5〉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양친은 거의

〈표 4〉 청소년기의 성장 거주지 조사

성장지 구분	인원(명)	비율(%)
도시	59	31.4
도시에 가까운 도회지	24	12.8
어느 쪽도 아니다	4	2.1
시골에 가깝다	37	19.4
시골	64	34.0
계	188	100

〈표 5〉 청소년기의 가정 분위기

가정 분위기의 구분	인원수(명)	비율(%)
양친의 생각 방향	36	19.1
자식의 희망 중시	56	29.8
양친의 불간섭	96	51.1
무응답	-	-
계	188	100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방관적 가정의 분위기가 과반수 이상의 96명(51.5%)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 2순위는 민주적 가정 분위기로써, “자식의 희망을 고려하여 상호 이야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56명(29.8%)으로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권위주의적이거나 복종적인 친자 관계로서, “양친의 사고 방식이나, 기대가 절대적인 느낌이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제 3순위로서 36명(19.1%)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분위기는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시골과 도시간 거주지에 따라서, 혹은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에 따라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에 관한 내용은 조사되지 못하였다.

3. 도서관장의 사회화 과정에 관한 요인 분석

사회적 배경에 관한 다양한 요소 중에서, 도서관장들은 과연 어떠한 사회과정을 거쳐 오늘의 도서관장의 직위를 얻게 되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그들의 사서전문직의 교육과 그들의 직업적 희망 및 도서관장직에 미치는 경력과 이력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도서관장의 학력 및 전공 이수

전반적으로 시골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도서관장들의 학력은 다른 집단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고졸 출신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단기 사서교육을 이수한 자가 67명(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나는 반면 오히려 전문대학(5명)이나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26명)한 출신들은 모두 31명(16.5%)으로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사서전공을 이수한 공공도서관장은 3명으로 나타나며 아예 사서전공을 이수한바가 없는 공공도서관장의 수요가 오히려 52명으로서 2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한동안 전문대학이나 4년제 정규학과 대학의 설치수가 거의 지방대학에는 없었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 단기적이거나 관장직 이전의 직업이력에도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도서관장들의 학력이나 전공이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공공도서관계는 아직 전문도서관장들로 분포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하겠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국의 공공도서관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서울만이 아닌 지방에서도 각 지역별 단위로 공공도서관장들의 전문성 교육을 위한 재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3.2 성장과정에 따른 희망직업

장래 자기 직업에 대해서 꿈을 갖게 되는 청소년 시기의 직업관과 그 이후 현실적인 상황에서 직업 선택을 해야되는 대학 졸업시기의 희망 직업관을 자유회답식으로 물었다.

〈표 7〉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청소년시기의 희망직종으로써는 응답자 총 174명중에 교원직업을 제시한 자가 56명(32.2%)으로서 가장 높은 편이며, 제 2위는 법조계나 금융계 및 언론문화계, 사서직과 같은 전문직종으로서 이중에 법조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 3순위는 경찰 및 군인직종으로서 24명(13.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행정 공무원직으로 21명(12.1%)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목할만한 일은 현직 도서관장 중에는 청소년 시기의 사서직종을 희망직종으로 선택한 사람이 1할미만도 안되는 저조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편 대학 졸업 당시의 희망 직종의 변화는 크게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구

〈표 6〉 도서관장의 학력·사서전공 이수별 분석

구 분	인 원	인 원(명)	비 율(%)	비 고
사서교육원		23	12.2	
국립도서관 강습		67	35.6	준사서 및 정사서 포함
전문대학		5	2.7	
4년제 전공학과		26	13.8	
대학원		3	1.6	
독 학		11	5.9	
不 修		52	27.7	
무 응답		1	0.5	
계		188	100	

〈표 7〉 공공도서관장의 시기별 희망직종의 비교

직종별		청소년기 희망직업(명/%)	대졸 후 희망직업(명/%)
행정직		21 (12.1)	59 (33.5)
교원직		56 (32.2)	21 (11.9)
전문직	법조계	24 (13.8)	9 (5.1)
	금융계	2 (1.1)	5 (2.8)
	언론문화계	0 (-)	20 (11.4)
	사서직	10 (5.7)	14 (8.0)
기술직		20 (11.5)	3 (1.7)
경찰, 군인		24 (13.8)	12 (6.8)
사업, 기타		17 (9.8)	33 (18.8)
합계		174 (100%)	176 (100%)

체적으로 보면, 청소년기의 희망 직종 중에서 제 1순위였던 교원직 보다는, 오히려 일반 행정 공무원직이 59명(33.5%)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교원직에 대한 희망비율은 대졸 시기에 와서 그 비율이 12.0%로 크게 절감되어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시기에 제 2순위로 인기가 높았던 법조계의 선호도는 대졸때가 되면서 제 6순위(5.1%)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청소년시기때 지망도가 없었던 언론문화계의 선호도는 대졸시기에 와서는 제 3순위(1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직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현상은 대졸시기가 되면 사회적 직업관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말하여, 현직 도서관장 중에서는, 대졸시기에 자신이 희망한 대로 행정공무원이 되거나 사서직으로서 도서관장이 된 사람은 각각 59명과 14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서, 행정직종의 일부 도서관장들은 이미 도서관장으로서의 근속년수가 오래된 자들도 있으며, 반대로 사서

직종의 일부는 오히려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생명을 길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일면의 현상도 있다.

3.3 도서관장의 직업경력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현재의 도서관장들은 여러 직종의 경력을 거치면서 사회에 첫걸음을 걸어 왔다. 관장들의 사회적 첫번째 직업에서 현재까지의 직업경력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표 8〉과 같이 요약된다.

현직 공공 도서관장들의 최초의 사회경력 조사에서는, 전체 123명 중 55명(44.7%)의 응답자가 행정직으로 출발한 관장들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순위로서는 32명의 응답자가 교원직 출신으로 나타나는데, 두 직종의 비율이 전체의 7할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는 기술직종과 사서직종 그리고 군인 및 경찰직종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경력 조사중 두번째 경력과 세 번째 경력 조사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일

〈표 8〉 도서관장직 이전의 직업과정 조사표(명/%)

직업별	최초 직업(%)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	관장직전의 직종(%)
행정직	55 (44.7)	38 (61.3)	34 (81.0)	42 (35.6)
교원직	32 (26.0)	12 (19.4)	1 (2.4)	25 (21.2)
전문(사서)직	8 (6.5)	3 (4.8)	5 (11.8)	32 (27.1)
기술직	11 (9.0)	4 (6.5)	1 (2.4)	8 (6.8)
군인, 경찰	8 (6.5)	3 (4.8)	-	7 (5.9)
사업, 기타	9 (7.3)	2 (3.2)	1 (2.4)	4 (3.4)
합계	123 (100%)	62 (100%)	42 (100%)	118 (100%)

반직 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에 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도서관장에 취임하게 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관장직전의 경력조사에서는, 응답자 118명중 행정직종이 42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 2순위로는 전문직종으로 나타나는데, 자료조사 과정상에서 분석된 내용으로는 전문직종 중에서도 법조계나, 금융계에 경력을 가졌던 자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관장 임용직전까지 일반 중견 사서직의 업무를 맡았다가, 도서관법의 시행에 따라 전문 사서직의 관장으로 임용된 응답자들로서 분석되는데, 이들 사서직은 전체 응답자 118명중 32명의 3할정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도서관장이 되기 직전 까지 교원직의 경력을 가졌던 응답자들은 제 3순위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전체 응답자 중 25명(21.2%)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는 일반 공무원에 채용되기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의 유형도 있고, 또는 교원직에서 일반 공무원으로 전향하여 도서관장에 취임된 경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도

서관장이라고 하는 현재의 직업적 위치의 인식은 처음부터 사서직종을 최초의 목표로 출발한 것으로 판단되기 보다는, 일반 공무원이나 교원직이라는 직업의 연장선상에서 도서관장이라는 직종을 희망한다고 하는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4. 도서관장의 성장지와 희망직종별 분석

4.1 청소년기의 성장 거주지와 희망직종별 비교

전문직이란 스스로의 전공을 우선으로 하며 또 그것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보람을 얻는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거주지의 도시 성향의 수준에 대해서 희망직종별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 9〉와 같다.

청소년기의 희망직종 1위인 교원직 그룹에서는 〈시골〉출신자의 비율이 〈도시〉출신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2순위로는 〈시골〉에서 판·검사 출신의 법조계와 같은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시〉에서는 법조계

보다는 언론문화계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 3순위로는 <도시>나 <시골>지역의 구별없이 일반공무원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사서직종의 선호도는 정보접근성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도회지>보다는 <시골>에서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생소한 전문직으로서 인식되어 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4.2 대졸시기의 성장 거주지와 희망 직종별 비교

청소년 시기와는 달리 대학에서의 전문직교

육을 이수한 후에 선택하는 직업별 희망직종의 내용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10>에 나타나듯이, 대졸시기에는 청소년 시기에 비교하여 희망직종의 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청소년시기에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교원직종은 크게 저하되고, 반대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는 오히려 시골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서 분석된다. 그리고 대졸시기에 와서는 전문직종에 대한 반응도 높게 선호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적인 면에서, 성장시기의 거주지에 대한 도시성향의 수준은 그 지역의 희망직종에 있어서 높게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9> 청소년시기의 거주지와 희망직종별 비교

거주지 \ 직종	행정직	교직원	전문(법조, 사서 외)직	기술직	경찰, 군인	사업, 기타	합계(%)
도시	7(4.0)	15(8.6)	10(5.7)	13(7.5)	8(4.6)	4(2.3)	57(32.8%)
도시 가까운 도회지	3(1.7)	8(4.6)	5(2.9)	3(1.7)	2(1.1)	3(1.7)	24(13.8%)
어느 쪽도 아니다	-	-	-	-	2(1.1)	-	2(1.1%)
시골에 가깝다	3(1.7)	13(7.5)	10(5.7)	3(1.7)	4(2.3)	3(1.7)	36(20.7%)
시골	8(4.6)	20(11.5)	11(6.3)	1(0.6)	8(4.6)	7(4.0)	55(31.6%)
합계(%)	21(12.1%)	56(32.3%)	36(20.6%)	20(11.5%)	24(13.7%)	17(9.8%)	174(100%)

<표 10> 대졸시기의 성장 거주지와 희망 직종

거주지 \ 직종	행정직 공무원	교원직	법조의 전문직	기술직	경찰, 군인	사업, 기타	합계(%)
도시	18(10.2)	6(3.4)	14(8.0)	1(0.6)	4(2.3)	12(6.8)	55(31.3)
도시 가까운 도회지	8(4.5)	2(1.1)	8(4.5)	1(0.6)	1(0.6)	3(1.7)	23(13.1)
어느 쪽도 아니다	1(0.6)	-	-	1(0.6)	1(0.6)	-	3(1.7)
시골에 가깝다	7(4.0)	4(2.3)	14(8.0)	-	3(1.7)	8(4.5)	36(20.5)
시골	25(14.2)	9(5.1)	12(6.8)	-	3(1.7)	10(5.7)	59(33.5)
계	59(33.5)	21(11.9)	48(27.3)	3(1.7)	12(6.8)	33(18.8)	176(100)

5. 도서관장 이후 생활의식의 변화

5.1. 도서관장의 탐구생활 방법

5.1.1 탐구활동 조사

전문인으로서의 관장 역할에 관한 탐구적 생활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는 <표 12-1>과 같다. 공공도서관장들의 탐구적 생활태도는 응답자 188명 중에서 86명이 <정간물 구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제 2순위는 <신문,

TV>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미나 참석>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이나 <인터넷 정보탐색> 등의 생활모습은 극히 소극적 자세로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11-1>의 결과를 도서관장들의 소속청에 따라 내무부와 교육부등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탐구생활의 차이점을 비교, 조사해 보았다 <표 11-2 참조>.

공공도서관장들의 소속청별로 구분해 볼 때,

<표 11-1> 도서관장으로서의 탐구적 생활방법

항목	인원수(명)	비율(%)
1. 정간물 구독	86	45.7
2. 신문, TV	40	21.3
3. 세미나 참석	28	14.9
4. 전문가 토론	5	2.7
5. 서점 방문	6	3.2
6. 기타	11	5.9
7. 시간 없음	8	4.3
8. 인터넷 정보탐색	4	2.0
계	188	100

<표 11-2> 소속청별 도서관장의 탐구활동 비교

탐구생활	소속청	
	내무부(%)	교육부(%)
1. 정간물 구독	36(44.6)	50(47.4)
2. 신문, TV	21(49.6)	19(17.0)
3. 세미나 참석	6(7.9)	22(27.6)
4. 전문가 토론	1(1.3)	4(3.6)
5. 서점 방문	4(5.3)	2(1.8)
6. 특별시간 없음	5(6.6)	3(2.7)
7. 인터넷정보탐색	-	4(3.6)
8. 기타	3(3.9)	8(7.1)
합 계	76(100)	112(100)

전체 응답자 188명 중 내무부 소속의 도서관장이 76명이고, 교육부 소속의 도서관장이 112명으로 구분된다. 전체적인 면에서 <내무부>소속 보다는 <교육부>소속 도서관장들의 탐구생활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된다.

<표 11-2>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소속청의 구분없이 <정간물 구독>의 비율이 모두 1순위로 나타난다. 제 2순위로서는 내무부 소속의 도서관장들은 <신문, TV>를 통한 탐구생활 방법을 택하고 있고, 교육부 소속의 도서관장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세미나참석>을 많이 택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교육부 소속의 도서관장들은 <전문가를 초빙한 토론회>라던가 <인터넷>을 통한 연구로서, 보다 새로운 변화에 대처해 나가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 주고 있으나, 반대로 내무부 소속의 도서관장 중에는 <서점방문>을 택하거나, 혹은 탐구생활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식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5.1.2 도서관장의 애독전문지 조사

앞에서 조사한 공공 도서관장들의 탐구생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정간물 구독>의 자료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조사된 결과를 자료별로 정리해 보면 <표 12>와 같다.

상기 <표 12>와 같이 도서관장들의 애독 전문지의 빈도는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의 <도서관전문지>가 101명(53.7%)으로 가장 우위이고, 그 다음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하는 <도서관문화>지가 52명(27.7%)으로서, 전국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장들은 8할이상이 2개의 전문지를 중심으로 애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일부의 도서관장들은 <출판저널>이나 <신간도서안내문>을 독서하는 관장도 있으나, 특히 도서관의 전문지식을 얻기 위한 <학술논문이나 학회지> 등에 접근하는 도서관장의 탐구생활은 1할 정도로서 지극히 저조한 현실이다.

5.2 도서관장의 여가생활 방법

5.2.1 주말 여가생활 조사

공공도서관장들의 여가 생활방법이 일반인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

<표 12> 도서관장의 애독전문지 조사

잡지명	인원수	비율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101명	53.7%
국회도서관보(국회)	3명	1.6%
도서관문화(도협)	52명	27.7%
도서관연구(서울시립)	8명	4.2%
출판저널	6명	3.2%
뉴스메이커	2명	1.1%
신간도서안내문	5명	2.7%
도서관 논문 및 학회지	3명	1.6%
기타	8명	4.3%
계	188명	100%

장들의 여가 생활 방법을 자유 회답식으로 질문 하였다.

“귀하의 생활 가운데서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 내십니까?” ① 주말 여가 생활방법과 ② 일주일 이상의 장기적인 여가방법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 였다. 그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와 같이, 응답자 65명(37.5%)의 관장들이 <등산과 수영>등의 방법으로 주말 여 가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다. 제 2순위로서는 가정에서 <휴식>을 하거나 <종교생활> 아니면 <가사생활>이나 <농사보조> 등의 생활로 주말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 분이 도서관장직에 관련된 <독서 및 연구활동>

이나 <어학 습득>을 위한 훈련으로서, 주말 여 가를 보내는 비율은 각각 1할 미만으로서 비교 적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공공 도서관장들의 주말여가 생 활에서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도서관 전문인으 러의 특징적인 여가 방법을 찾아 볼 수는 없었다.

5. 2. 2 장기 여가생활 조사

짧은 주말의 여가생활 방법과는 달리 장기적 인 여가생활이 있게 되는 경우에, 도서관장들의 생활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된 내용의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3> 도서관장의 주말 여가 방법

주말 여가 방법	인원(명)	비율(%)
등산/운동(수영)	65	37.8
야외/여행(낚시, 고적답사)	14	8.1
독서/연구(어학습득)	11	6.4
인간관계(경조사, 친구)	14	8.1
가사생활/농사보조	17	9.9
문화생활/영화감상, 연극 등	6	3.5
기타(휴식, 종교생활)	45	26.2
합계	172	100

<표 14> 도서관장의 장기여가 생활조사

장기 여가 방법	인원(명)	비율(%)
등산/운동(수영)	4	2.9
야외/여행(낚시, 고적답사)	102	73.3
독서/연구(어학습득)	8	5.8
인간관계(경조사, 친구)	9	6.5
가사생활/농사보조	6	4.3
문화생활/영화감상, 연극 등	1	0.7
기타(휴식, 종교생활)	9	6.5
합계	139	100

〈표 14〉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응답자 139명 중 7할 이상이 〈야외나 여행〉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함에 비하여, 〈독서/연구〉의 여가 방법은 5순위로서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도서관장들은 주말이면 〈등산이나 운동〉으로 여가를 보내며, 오히려 장기 여가시간이 나면 낚시나 고적답사 등의 〈야외/여행〉의 방법을 가장 높게 선호하는 자세로서, 도서관장직의 효율적 역할을 위한 탐구적 생활의식은 지극히 저조한 편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장기적 여가의 경우일수록 〈가사생활〉이나 〈독서/연구〉 〈문화생활〉을 보내는 도서관장은 단기 여가생활의 경우보다 더 저조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직 지향의 도서관장이 되고자 하는 의식보다는 관리직 지향의 도서관장의 지망도가 높은 영향에서도 기인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5.3 현직 도서관장으로서의 외부활동 상황

전국 공공 도서관장들의 관장역할과 관련하여 주어지는 외부 활동상황을 자유 대답식으로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5〉의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 188명

중 거의 7할 정도의 관장들이 〈지역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 활동으로서 지방자치 의원들과 연계된 외부 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도서관장들의 활동속에서는 학부모나 교사와 같은 지역주민의 생활속에 깊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지역에 관련되는 관공서나 비정부 기관들의 정보요구에도 긴밀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전문가적 의식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5.4 도서관장의 효율적 개발활동 분석

최근 도서관장의 역할로서 새롭게 시도한 활동 가운데서 효율성이 가장 높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응답토록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응답자 188명 중 도서관 현장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강연회〉가 43명(22.9%)으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와의 긴밀한 접촉〉이나 〈도서관신규사업 추진〉 등의 순서로서 모두 2할 내외의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예산 유치를 위한 회의〉나 〈이동도서관의 확대〉 및 〈관외대출 등의 다각적 봉사연구〉와 같은 활동도 각각 1할 미만으로서, 관장

〈표 15〉 현직 관장으로서의 외부 활동 조사

외부 활동 내용	인원(명)	비율(%)
지역사회에 나가 도서관을 홍보한다.	130	69.1
시의회 의원들과 만난다.	21	11.2
다른 서비스 기관에 참여한다.	11	5.9
지역사회의 학부모나 교사모임을 유치	7	3.7
기타	19	10.3
계	188	100

〈표 16〉 도서관장의 효율적 개발활동 내용

개발활동내용	인원(명)	비율(%)
1. 예산유치를 위한 회의	8	4.3
2.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접촉	39	20.7
3. 도서관 현장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강연회	43	22.9
4. 도서관 신규사업 추진	37	19.7
5.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16	8.5
6.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홍보 및 견학실시	17	9.0
7. 아동도서관의 확대 운영	10	5.3
8. 관외대출 및 봉사의 다각적 연구	8	4.3
9. 기타	10	5.3
합계	188	100

들의 역할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소수 도서관장들의 활동은 지역의 방송출연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주민에게 강조하거나, 또는 공공 도서관 운영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장들의 긍정적인 활약도 <기타>사항에서 각각 2,3명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장들의 성장시기의 사회적 배경과 성장과정 및 그들이 희망하던 직업 등을 조사 분석하고, 관장 이후의 생활의식의 변화 등 제 요인들을 분석, 정리하여 한국 공공도서관장들의 본질적인 속성을 찾아보고, 나아가 미래 도서관장들이 지녀야 할 직업적 의식과 역할의 변화를 제시해 주고자 하였다.

여기서 조사 분석한 결과,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공공도서관장들의 세대별 의식조사에

서는 6·25전쟁세대에서 4·19세대 및 70년대 고성장세대의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② 도서관장들의 세대별 특성조사에서는 연령 층에 구애 없이 <개인보다는 공적일을 중시함> 또는 <근면성>이나 <인내심>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비교적 도서관장들이 성실하고 근면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상을 잘 반영하여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39세 이하의 젊은 세대 층에서만은 <능력위주>와 <개인생활 중심주의>에 대한 특성이 다른 세대층과 비교해 볼 때, 보다 두드러진 차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50세 이상의 세대에서는 <보수성>이나 <가정중심주의> <장유유서>에 관한 특성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③ 도서관장의 출신 지역의 도시화 수준의 조사에서는 <시골> 또는 <시골에 가깝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3.4%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④ 도서관장의 성장기의 가정 분위기 조사에서는, 민주적 가정분위기(29.8%) 보다는 방임

적 가정분위기(51.1%) 속에서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하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권위주의적이거나 복종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서관장들의 지난 2,30년전에 주어졌던 우리시대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두웠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⑤ 도서관장들의 청소년시기의 희망직종 분석에서는 교원직을 희망하는 자가 제 1순위로 나타난다. 특히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서 교원직을 더 희망하는 직업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졸업시의 희망직종에서는 교원직의 선호도 보다는 오히려 일반 행정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직업관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도시>보다는 <시골>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⑥ 현직 공공도서관장들의 관장직전의 직업 경력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할 이상이 행정 사무직에 관련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도서관장직을 임용받게 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리고 교원직 이후에 도서관장이 된 그룹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서 이들의 대부분은 관장의 근무 연수가 비교적 길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경력의 연장선에서 분석해 볼 때, 한국 공공도서관장직의 위치는 전문사서로서 필히 성취하고 싶은 위치로 인식되기 보다는, 아직도 일반 공무원의 한 부서로서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도서관장의 전문직 제도가 확실하게 성립되어져 시행되고는 있으나, 그것이 강력히 집행되기까지는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소수의 공공도서관장들은 현재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면서, 도서관 운영에

소신 있게 대처해 가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일로 평가된다.

⑦ 도서관장으로서의 탐구적 생활 조사에서는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방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특히 <세미나 참석>에 대한 활동면을, 도서관장들의 소속청별로 그 차이를 조사해 본 결과로서, 교육부에서는 2순위로 나타나고, 내무부에서는 제 3순위로, 교육부 소속 관장들의 탐구활동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소속 관장들의 탐구생활 중에서도 <전문가와 토론>을 한다거나, <서점방문> 및 <인터넷 탐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탐구 태도들은 역시 저조한 비율로서 나타나고 있다.

⑧ 도서관장들이 애독하는 전문지로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의 <도서관>지가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도서관협회 발행의 <도서관 문화>지가 3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⑨ 도서관장들이 여가생활 조사에서는 주말이던 장기간이던 상관없이 대부분이 <등산>이나 <운동> 또는 <여행>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독서나 연구> 또는 <연극이나 영화> 등의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관장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학훈련> 이나 도서관계의 <학술지나 논문> 자료를 통해 도서관장의 직무를 위한 준비자세로 여가를 보내는 일면도 찾아볼 수 있다.

⑩ 현직관장으로서의 외부 활동 조사에서는 <지역사회에 나가 도서관 홍보>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할 정도로 가장 많으며, <시의 원과의 만남>의 역할을 1할 정도로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활동으로는 거의 없는 상태로,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장들의 활동의 인식이 필요

하다 하겠다.

⑪ 최근 관장들이 개발한 효율적 활동 내용에서는 특별히 괄목할 만한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공공도서관 현장의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강연회>의 활동을 제 1순위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접촉>과 같은 활동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각각 2할 정도의 비율로서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서관장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식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유치를 위한 활동>이나 미래 디지털 도서관 환경 하에서의 <관의 대출 및 봉사자의 다각적 연구>와 같은 활동들도 각각 4.3% 정도로서 지극히 미약한 상태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 한국 공공도서관 운영의 부진성을 초래할 우려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공공도서관장들의 새로운 의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⑫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부분의 도서관장들은 <시골>지방의 배경 속에서 사서직종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희망직종으로 처음에는 교육자나 법률자, 또는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였다가 그 후에 다시 도서관장이 되기를 희망한 사례로 나타난다. 특히 1945년 이전에 태어난 관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현실적인 직종으로서 사서직을 희망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도서관의 서비스라는 것이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홍보가 되지 못할 만큼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학의 교육도 모든 지역에서 자유로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던 시기이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향후 한국 공공

도서관장의 미래상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공공도서관장들의 재교육을 의무화 해야한다. 공공도서관장들의 책임과 역할에 필요한 리더쉽 교육은 물론 인사관리와 예산편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질적 서비스의 교육등 부단한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날때마다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장의 재교육을 지방에서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중견관리자층에 대한 연수기회를 각 지방권에서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서울과 지방간에 소요되는 교통시간과 제반비용은 물론 도서관 업무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도서관장들의 새로운 경영지식과 직업의식을 얻게 하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도서관장들의 직업경력 조사에서도 부연한 바와 같이, 현재 법률상으로는 도서관장들의 전문직제도가 확실하게 성립되어져 시행되고는 있으나, 그것이 철저하게 집행되기 까지는 아직도 중앙정부나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의 전향이 크게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적극적이고도 부단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넷째, 도시보다는 지방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의 역할과 사서직종에 대한 홍보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郡이나 읍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정보의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보다는 다소 뒤떨어지므

로, 전문직 도서관장이 되기 위한 희망직종의 순위도 조사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방안 부족이나, 다양한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성에도 영향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부연한다면, 공공도서관장의 직위는 사회화 과정상에서 최초부터 사서전문직의 교육을 받은 도서관장이 역할을 맡아야만 모든 지역에서 보다 질 높은 주민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전문학술지도 탐구해 가며, 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활동도 스스로 개발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탐구해 가려는 의식있는 도서관장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주어져야만 미래의 한국 도서관계에서도 전문직 지향의 도서관장이 되겠다고 하는 후진들의 새로운 의식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朴文相. 1991. "專門職主義(professionalism) 확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pp. 80-82.
- 김종권. 1995. "전문직과 관리직의 직무수행상의 인지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한국도서관협회. 1997. 도서관인 윤리선언.
- 전국사서협회·도서관운동연구회. 1996. "공공도서관관장, 그는 누구인가." 공공도서관 활성 화를 위한 심포지움 자료(1).
- Sharan M. garrou. 1996. "The Role of the public Library Director." The Katharine sharp Review, ISSN 1083-5261, university of washington, NO.2.
- Joy M. Greiner. 1985. "A comparative study of the Career patterns of Male and female Administrators in the Large public Libraries." Library Trends, V.34, NO.2.
- Vema L. Pungitore. 1987. "Perceptions of change and public Libray Directors in Indiana: An Exploratory stud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9, pp.247-264.
- 大島敏洋·杉村優. 1997. "公立圖書官長の 専門職意識とろの 規定要因." 圖書館情報大學研究 報告書, V.13, NO.1.
- Guy A. Marco. 1996. "Ethics for Librarian: a narrow view." Journal of Libra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28, NO. 1.
- Janice J. Kirkland. 1997. "The Missing women Library Directors: Deprivation versus Mentoring."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58, NO.4.

D.P. Carrigan. 1992. "the Roles of
Library director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city."
Public Libraries, V.31, NO.6.

P. Torgeson. 1991. "Rural Library

issues: Three veteran administrators
speak out." Public
Libraries, V.30, NO.3. pp.
156-158.